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사찰마다 다른 의식

대학 신입생인 서울 신림동의 장모씨는 대불전에 나가면서 다시금 불교의식을 배우는 데 여념이 없다. 장씨는 고교시절 집근처 사찰에 나가면서 의식을 익혀왔다.
 이후 대학근처의 사찰에 나가면서 행하는 의식은 읍골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반아심경 읍골뿐 아니라 삼귀의 사용서원도 노래식으로 다시 배워야 했다. 또 초파일 때 봉사활동 나갔던 사찰에서는 한글의식을 하고 있어 따라하기도 못하고 가만히 서있었다 왔다.

각 사찰마다 다른의식은 불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반아심경과 천수경, 사홍서원이 없는 남방불교의식을 행하는 사찰도 있다.
 우리불교의식은 <석문의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한문위주의 경전에 따른 불교의식은 한문-한글등 제각각 글세대인 상황에서 의식 통일화 절실 어려움 난관에 처해있다.

부산 영주사의 한 신도는 한문 일색으로 돼 있는 법요집을 대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의문이 생겨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글의식의 경우도 사찰마다 각각이어서 읍골이 모두 다른 것은 물론 사용하는 문구나 단어의 어휘선택도 차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0여곳에 이르는 불교의식교육원의 교육내용도 지각각이며, 종단과 단체, 개인이 만든 법요집도 30여종 이상이 있으나 통일성이 부족하고, 일부 사찰들은 각 법요집의 필요한 곳만 이곳 저곳에서 모아서 책으로 엮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통일법요집>을 발간했으나 불교의식의 통일화는 기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이다. 불교대중화에 있어 의식의 통일화는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종단 종파에 관계없는 범종단 공동기구를 발족하여 협의체를 통한 의식의 통일화 작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ania.com)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사찰 수해대비 '시급'

작년 피해사찰 10여곳 미복구상태
 국지적 호우 예상...성보 피해도 우려

사찰 수해대비가 시급하다. 제주지역은 이미 이달 중순 장마가 시작됐고, 하순부터 남부와 중부지방이 장마권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올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조금 짧았으나, 장마전선이 불규칙적인 남북이동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의 지역차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지적으로 집중호우도 예상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 수해대책은 미비해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64개 사찰이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도 복구가 안된 곳이 10여개 사찰에 이르는 것으로 본지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 보광사의 경우, 지난 해 산 정상쪽 군부대 공사장에서 밀려내려온 토사가 요사채를 덮쳐 인명피해까지 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 주지 일문스님은 "큰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군부대에 토사제거 작업을 재차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보광사 인근의 영묘암 바로 앞을 지나는 계곡도 지난 해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대웅전과 계곡이 불과 10m 거리여서 보는 이를 아슬아슬하게 한다.



◇지나해 폭우로 무너진 계곡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경기도 파주 영묘암 대웅전은 계곡과 불과 10m 거리에 있다. 파주=고영배 기자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공감

종지종통 봉대·권리제한 해제 등 8개항 합의

조계종 중앙총회 법안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현안대책실무위원회는 22일 4차 연합회의를 열어 양측간 관계정립을 위해 논의하고 8개항의 공동 합의문(합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임원분리장 등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계종종무원은 "조계종-선학원의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양측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통해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공감하며, 향후 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선학원 정관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선학원 정관 임원선출 조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역량있는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또 △조계종은 선학원에 시행하고 있는 승적, 교육, 선거제, 종무제 제한 등 일체의 권리 제한을 해제하고, 선학원은 조계종에 분담금 등 의무를 이행 △선학원은 합의문 발표 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선학원에 사할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종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조계종 중앙총회와 선학원 이사회의 결의, 조계종 종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의 서명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7월말경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합의문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선학원도 같은 시기 이사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바른 직업인으로 사회회향"

직장기능단체 170여 지도자 한자리
 울안 전국적 '연합기구' 출범 결의

조계종 포교원(위원장 정현)이 주최해 19일~20일 서울 서초교 육문회의관에서 열린 전국 직장기능 불교신영단체 지도자대회에 참가한 74개 신영단체 170여 지도자들은 올 12월 안으로 직장기능 신영단체 연합기구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신영단체는 기초조직업으로 직장별 기능별 전국 연합회 결성에 힘을 결집시키기로 하고 실무위원의 구성에 합의했다. <관련 기사 5면>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바른 직업인으로 사회에 회향 △직장 기능별 불자모임을 적극 확산하고 법회를 활성화 △불자간 무차별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직장 기능 불교신영단체 연합조직 결성 추진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광선 기자

클릭!
인터넷 TV
열려라 불교정보

컴퓨터의 '킵' 자도 모르는 '킵'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가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7월22일~24일, 에버랜드 · 사찰서 2박3일

◇일 정: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용주사 신복사 외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5만5천원
 ◇문 의: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 · 진각종 총무원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 불교조각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안팎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열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란다.

생명의 고귀함 - 불자님들의 마음입니다

98년에 보내 주신 1200만 불자님들의 지극한 사랑으로 대동소방은 MF현란을 무사히 극복하여 왔습니다. 불자님들 한분 한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증중하는 대동소방에서는 초강력 미니소화기 불자비를 출시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초강력 미니소화기를 준비하세요.

초강력 미니 소화기 불자비 특징

- ▶ 배변용지 소변용지 소화기보다 2배정도 쉽게 사용될 수 있음
- ▶ 불꽃 소화기처럼 불꽃이 주거나 고열 발생이 없음
- ▶ 배변용지 소화기보다 소화기 2배정도 가볍고 사용 가능
- ▶ 식유 가스 위험을 고우들의 위험한 상태 강고 견디기
- ▶ 초음속 분사 가능
- ▶ 대형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화재현황을 미리 파악가능

자매품

대동의 초강력 미니소화기 불자비 정밀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의 이웃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2215-0723